

호남선 폐선부지에 태양광 발전 본격 가동



- 유휴 철도부지 약18,618㎡에서 연간 3,787Mwh 전력 생산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평군에 위치한 철도 폐선부지 4개소(18,618㎡)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발전소는 지난해 5월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솔라오션)이 철도 폐선부지인 나주시 1개소 함평군 3개소에 2,965KW 용량으로 설치했으며 약 1년 5개월의 건설기간을 거쳐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연간 3,787Mwh의 전력량은 약 1,606Ton/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7,333그루의 소나무 식재효과가 있으며 이와 함께 본부는 유휴 철도부지 사용료로 연간 약 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한 부채의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 및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철도유휴부지 뿐만 아니라 폐선된 철도터널 등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본부 소외시설 찾아 나눔행사



- 대전 동구 밀알복지관에 겨울나기 성금 보태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은 지난 13일 대전 동구 삼성동 밀알복지관(관장 권용명)을 방문해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한 성금은 동절기 대비 겨울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가정 김장담기 지원 및 연탄 보급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청본부 KR봉사단은 밀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청본부, ‘윤리실천 어깨띠’ 두르고 ‘대전천 대청소’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대전천 목척교에서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가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행사는 본부 직원 20여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원 20여명이 합동으로 ‘윤리실천 어깨띠’를 두르고 대전시민들의 습터인 대전천 목척교 일대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2010년부터 상호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을 맺고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 및 공기업 사회적 책임완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도시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시행

주민설명회 시행

- 공단·대전시 공사추진 안내 및 지역주민 생활불편 의견 수렴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수렴 및 현장조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행했다.

그동안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대표자가 면담을 시행하는 방식에서 탈피한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주변 주민센터와 아파트단지 등을 직접 방문하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공사추진 안내로 공단과 대전광역시 공사시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홍도육교 건설사업 등을 홍보하며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수렴 및 적극적 현장조치를 약속했다.

김인재 건설기술처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조치로 지역주민 진정민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 기대하며 “철도구간 공사를 계획공정대로 완공해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대전도심 경부선 상부통과 철도교량 안전하게 시공 Start!

- 열차운행선 지장작업 최소화 하는 신공법 개발로 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건설사업 중 경부선을 상부 통과하는 철도교량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Heavy Lifting 가설(중량물을 들어 올려 밀어 넣는 가설공법)’ 신공법을 개발해 지난 9일 안전하게 첫 교각 시공을 마쳤다.

경부고속 대전도심 관암교 교량은 총 연장 1,114m 중 100m 구간이 기존 경부선을 횡단하며 SRC(문형교각, Steel Reinforced Concrete) 위로 강Box를 사용하는 단계로 공사가 시행돼 고속열차 등 310회 이상 열차가 운행하는 기존 경부선 위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김인재 건설기술처장은 “최첨단 신공법 현장적용에 앞서 전문가 기술자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공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신공법 개발과 안전시공이 향후 해외시장 철도 개척에 있어 큰 경쟁력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강원본부, 지자체와 상생협력으로 주민편의시설 조성 기여

- 철도 유휴부지 환경정비로 지자체로 부터 감사패 수여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최근 강릉시 주민진을 시가지지를 관통하는 철도 유휴부지(주민진읍 교항리 328-2, 2,160㎡) 내 설치된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감사패 및 담당자 권용대 과장 개인 표창을 수여 받았다.

그동안 주민진읍 시가지 철도부지는 일제 강점기 때 철도건설을 위해 확보된 국유지(보존재산)로서 1953년 6.25 한국전쟁 휴전 후 피난민 무단정착촌이 형성되는 등 60년 동안 도시미관 불량지역으로 분류되어 철도 이미지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왔다. 이에 본부는 2012년 6월부터 2년간 ‘국유재산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무단점유자들을 수십 차례 설득한 결과 작년 6월경 부지 정비작업을 마쳤고 강릉시(복지공원사업단)는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금년 상반기에 소공원, 공영주차장의 주민편의시설을 완료했다.

정비작업 기간 중 미관이 불량한 철도부지가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보는 지역주민들은 환영했으며 작업 중 불편(소음, 분진 등)을 감수하며 음료를 건네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본부에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간 중 인근 철도부지 내 불법시설물(17개소, 연면적 1,130㎡)을 자진철거 완료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결과 본부는 부지사용료(연간 1,200만원)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얻게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철도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강릉시에서는 도시미관 불량지역을 정비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편의시설 확보 및 부동산 가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본부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이룬 성과로 지역발전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강원본부 조도호 기자>

주요기사(2014. 10. 1~17)

- 2014. 10. 1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의 길 걷기’ 행사 (동아 B06, 매경 30)
 - 철도부지 1만 9,000㎡ 임대 (강원 18)
 - 내년 신경주~포항 KTX 개통 코레일, 6월까지 안전점검 (대구 09, 국민 12)
 - 호남KTX역사 익산서 강제로 옮겨야 (한겨레 12)
 - 해일건설 수주 4년 만에 700억 보인다 (한경 31)
 - 동대구역합승센터, 땅주인 허락 없이 배방 공사 (한국 14)
- 2014. 10. 2
 - 강릉 도심 철도 역사 속으로(경향 15)
 - 철기도시 도심구간 철로(강원 22)
 - 강릉·광창·진부역사 디자인 공모 최원혁씨 최우수 선정 (강원도민 13)
 - GTX·지하철 3호선 연장 속도 낸대(경기 05)
 - 익산역, 새만금-전북혁신도시 지역으로 옮겨야 (동아 18B)
 - 성남~이천~여주 복선화 지원 한뎀(경인 05)
 - 강릉역세권 복합 문화공간 조성 (강원도민 12)
 - 월미호러벨, 결국 레일바이크로 바꾼다(동아 18B)
 - 국립철도박물관 임시 물색... 대전이 최적지로 꼽혀 (중도 02)
 - 가습 앰버내트 KTX(중도 04)
- 2014. 10. 6
 - 양산 물고·원동역 승강기 설치한다 (국제 12)
 - 대규모 대전명품역사 건립 속도 (대전 02)
 - 서해안 철도 건설 공동 대응 등 12가지 합의(광주 02)
 - 싱크홀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 상생물산, 현대산업과 인왕 담합 (서울 08)
- 2014. 10. 7
 - 불공정 거래 해소·중소 지원 작년 美 고속철도사업에 진출 (한국경제 D07)
 -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소통의 장’ (한국경제 D07)
 - 황명성 논신시장 ‘KTX후진지역 용역비 확보 전략’ (충청투데이 18)
 - ‘광역철도 국가책사업으로 추진해라’ (영남 03)
 - ‘유리시아’ 아니셔티브 구축 본격 시동 (국민 02)
 - ‘합력’ 의 차·파격 의 숲, 남북 큰 통로 여나 (국민 03)
 - 123회 점검 공사장 지적 사항 20여 개 개선됐다 꼭 확인 할 (중앙 14)
- 2014. 10. 8
 - 오늘 강릉역 설계 사용자 참여 워크숍 (강원도민 12)
 - 바려진 땅을 주가지 주차장 썼는데 철도공단 뒤늦게 법 내세워 토내라 (국제 06)
 - 55개 공공기관 12개 예산 낭비 (대전 06)
- 2014. 10. 10
 - 시공법 모으자-터널 전철 검토 (강원도민 14)
 -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6분의 1로 줄여 (세계 09)
- 2014. 10. 10
 - 경춘선 도심하부 시민공원 조성 (강원도민 10)
 - ‘경원선 철원까지 연장해달라’ (강원 17)
 - 철자 잦은 고장·지연 ‘승객 민 운다’ (경인 22)
- 2014. 10. 13
 - 방안명령 해소 과제 38개 공기업 중 코레일·한국기술, 노사 합의 시한 넘겨 (조선 02)
 - 민간 SOC 손실보전에 5년간 3조 편성 (세계 18)
 - 4년간 막대한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공사 재계 증세 (서울 27)
 - 도심구간 지하화 공사 공법 변경 논란 (강원 22)
 - 호남선 용산철교 ‘농로’ 활용 (전북 12)
 - 국토부 문제사업 50% 대구·경북 집중 (경북 01)
- 2014. 10. 14
 - 철도시설공단 겨울나기 성금 전달(파이낸셜뉴스 33)
 - 복선철 고밀 원호평행 발전 모색(강원도민 12)
 - 강릉시, 지상 폐철도 철거 요구(강원도민 12)
 - 영동역 건설현장서 폐수 무단방류(충청투데이 03A)
 - 대전도심철 2호선 기종 내달 결정(대전 2)
 - 민자 도로·철도 적지보전액 6230억(중앙 B04)
- 2014. 10. 15
 - ‘개원제도 개선-전연예우 차등’ (동아 B04, 매경 31, 서울 28, 국민 12, 사경 06, 파이낸셜 27, 총투 09)
 - 호남선 폐선부지에 태양광 발전 본격 가동 (광남 09)
 - 동내 전철공사구간 보강 해결 나선다 (강원 19)
 - 철로 위 행복주택 안착한다 (사경 27)
 - 터널 뚫고 7년... 천선산, 물이 맑았다 (경향 14)
- 2014. 10. 16
 - 동부서관평단지역 건설 철도시설공, 12월 완공 (파이낸셜26)
 - ‘청량리~양주역 포화 복복선화 필요’(강원6)
 - ‘주민 의견변경 필요’ (강원도민10)
 - ‘원주~강릉 복선화 동해까지 연장해야’(강원도민12)
 - 대곡~소사 복선철도 ‘빨간불’ 정부 또 평역철도 예산 편성 (경기02)
- 2014. 10. 17
 - ‘동내 정거장 지하화로 폭 6m → 12m’ (강원 19, 강원도민 13)
 - 남원주역 ‘شد트식 철로’ 해법 모색 (강원도민 12)
 - ‘철도 도심구간 문화재 발굴시 대책 땀’ (강원 22)